

대한항공 1백번째 항공기 도입

대한항공이 민항출범 26년만에 항공기 1백대를 보유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3월 2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과 미국 보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백번째 보유 항공기가 될 B747-400기 인수식을 가졌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20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항공(JAL), 전일공항공(JAS)에 이어 3번째로 1백대의 비행기를 보유한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대한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제작사별로 보면, 보잉사 기종이 40대로 가장 많으며 에어버스사 기종 31대, 맥도넬 더글러스사 17대, 스포커사 12대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전면수정

월내 최종인확정 고시

영종신공항에 경부고속철도가 연결되고 5만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시설과 활주로 2개가 추가로 건설되는 등 신공항건

설 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신공항건설공단 고위관계자는 4월 4일 {항공수요의 급증 등 여건변화와 동북아 거점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2년 결정된 영종공항 기본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공항 접근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종합물류단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5만급 선박접안시설을 함께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4개로 계획된 활주로는 2천년대의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2개를 추가, 모두 6개를 건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전망대 오픈

비행기의 이·착륙은 물론 활주로와 계류장에서 오가는 비행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3월 30일 김포국제공항에 문을 열었다. 한국공항공단은 이날 국내선과 국제선 1층사 사이에 있는 공단청사 5층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 그간 거대한 청사 뒷편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계류장과 활주로를 일반에 공개했다.

공단이 4억5천여만원을 들여 옥상 1백40평에 설치한 이 전망

대에는 스낵점, 공중전화,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기내에서도 축전 받을수 있다

아시아나 5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이 축전을 받아 볼 수 있는 '경축전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5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월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축전보시스템은 전보를 칠 사람이 전국의 어느 전화국, 우체국에서나 출발공항, 항공편명, 일시, 출발시간, 승객성명 등을 전보배달 하루전까지 접수시키면 승무원이 출발전 이를 넘겨 받아 기내에서 해당 승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신규노선 취항

- 서울-아모리 4월 2일 대한항공 F-100(109인승) 주3회
- 서울-괌 4월 1일 아시아나 B767-300ER(217인승) 주7회
- 서울-마쓰야마 4월 7일 아시아나 B737-400(160인승) 주3회
- 서울-오사카 미정 아시아나

B767-300(240인승) 주2회

● 서울-시애틀 5월 18일 아시아나 미정

● 서울-시드니 7월 아시아나 미정

● 대구-사이판 3월 17일 아시아나

B737-400(164인승) 전세기

● 대구-후쿠오카 3월 24일 대한항공 MD82(164인승) 전세기

통영 — 김해공항공간 헬기 7월 취항

오는 7월부터 통영시~김해공항 구간에 헬기가 취항한다. 3월 24일 통영시에 따르면 삼성항공이 이 구간에서 헬기 운항사업계획서를 낸 가운데 부산지방항공청이 최근 내인가를 해 오는 7월에 10인승 헬기가 취항할 전망이다.

하루에 4회 왕복운항하는 이 구간의 헬기를 이용하면 통영시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데 15분이 소요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기 끈끈이 활주로 사고 예방

비행기가 이-착륙지점을 지나 치더라도 활주로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개발되

었다. 이름하여 '비행기 끈끈이'. 파리를 잡기 위해 매달아 놓던 끈끈이를 활주로에 깔아놓는다는 아이디어다. 미연방항공국(FAA)의 최근시험에 따르면 시속 약1백km의 보잉727기가 브레이크없이 약122m 지점에서 멈추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이같은 활주로를 우선 450만달러를 들여 케네디공항에 2개, 라파르디아 2개, 뉴아크공항에 1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여객 공항이용료 인상

4월부터 여객 공항이용료 및 항공기 착륙료가 10~50%까지 인상되었다. 건설교통부는 3월 8일 4월부터 국내선 여객 공항이용료를 현행 2천원에서 50% 올려 3천원으로, 국제선의 경우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5%올리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항공기 착륙료는 현행 747 점보기 기준으로 1백60만3천원에서 10% 인상된 1백79만3백원으로 올리며 항공기의 야간 착륙시 필요한 조명료는 3만1천원에서 3만4천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료 일부 인상

4월 1일부터 서울 출발 국제선 항공운임의 화폐단위가 달러화에서 원화로 바뀌고 일부 노선의 운임이 인상되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국이 자국 화폐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항공운임을 자국화폐로 표시키로 하고 이미 84개국이 자국화폐로 항공료를 표시하는 추세 등을 감안, 4월부터 원화표시로 바꾸고 한일노선 등의 요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노선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 5%, 비즈니스클래스 14%, 일등석은 6%가 오르고 미주노선은 이코노미 0.25%, 비즈니스 5%, 일등 7%, 유럽노선의 비즈니스 및 일등은 각 5%가 오른다. 동남아 노선의 요금은 동결됐고 중동노선의 경우는 오히려 떨어져 이코노미 0.4%, 비즈니스 0.2%, 일등 6.05%씩 인하된다.

김포공항 통과여객수 세계13위

국제공항협의회(ACI)는 31일 지난 94년 세계항공승객이 통과여객기준으로 전년대비 8.4%,항공화물은 물량기준으로 12.7%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서울의

김포공항은 통과객수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천 7백 33만 4천명으로 세계 13위에 랭크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과여객기 중의 세계 15대 공항중 11개가 미국에 있고 화물운송 물량기준으로는 미국의 댐피스, 일본 동경, 로스앤젤레스 공항 순이다.

덴버 국제공항

소화물시스템 결함속 항공기 발착은 정상 운영

소화물 자동 배송시스템의 결함으로 1년여 개장이 늦어지다 최근 문을 연 미 덴버 신국제공항이 자동차 주차와 소화물 찾기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항공당국은 개항 30일이 경과한 현재 4만2천회의 여객기 발착이 있었으나 이중 지연사례는 2백45건에 불과한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737 조타장치 "결함"

미국정부 조사지시

미국정부가 14일 보잉737기의 조타장치를 조사할 것과 에어로 컨트롤사에 의해 조정된 부품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미연방항공국(FAA)은 지난 3월9일 워싱

턴주의 한 정비공장에서 에어로 컨트롤사에 의해 조정된 중앙조타장치(PCU) 36개중 2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능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로 컨트롤사에 의해 조정되고 검사받은 조타장치를 설치한 비행기는 미국내에 26대, 해외에 1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A, 민항기 6천대 운항 금지

미연방항공국(FAA)은 3월17일 세스나기등 약 6천대의 민간 항공기에 대해 운항 금지명령을 내렸다. FAA는 당국의 인가를 얻지않은 문제의 부품들은 독일 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 부품은 '텍스트론 라이커밍 엔진'에 장착되는 제품처럼 보이도록 하기위해 패키지 상태로 반입됐다고 말했다.

FAA측은 미세관이 이들 결함 부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부품은 정상적으로는 품질보증 부품에 찍히는 표지가 부착돼 있지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이커밍 엔진은 현재 비치,에어로 코맨더, 그루먼 아메리칸, 후지중공업, 록

웰, 도니어 루프트파트, 세스나, 파이퍼기등 다양한 기종에 부착돼 있다.

대한항공, 세계최대 항공 화물 정보기구 창설

대한항공은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공동으로 항공화물 정보기구인 '이아타카고미디어(IATA CARGO MEDIA<Multinational EDI Association>)'를 설립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기존의 항공화물 정보업체인 트랙손(TRAXON)과 시디(CIDIG)의 정보망을 연결한 IATA CARGO MEDIA *항공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교환, 처리하고 * 항공화물상품을 개발, 판매하며 * 항공화물정보의 전자정보교환(EDI)에 필요한 환경과 서비스 표준을 개발, 정립하고 * 항공사와 대리점, 외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정보 서비스와 함께 컨설팅 서비스 등을 하게된다.

구직안내

수산대 경제과 졸업
62년생, 日·英語 可
무역경력
연락처 : 939-4955,
496-1240